11. 명분을 바르게 하는 것이 다스리는 도리의 근본이 됨을 논함

손님 지금 당장 급한 일은 단지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인재를 길러 내기만 하고 끝냅니까?

주인 좋은 질문입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인재를 기르는 일은 참으로 오늘날 다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시(國是)*를 아직 정하지 못하고 명분을 바로잡는 일이 미진하니, 비록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인재를 기르려고 하여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개국한 이래로 올바른 사람이 진출하고 잘못된 사람이 쫓겨나기를 참으로 많이 되풀이 해왔지만, 사림(士林)을 모조리 죽여 없애 나라의 명맥을 끊어놓은 것은 을사사화*가 가장 심했습니다. 정순붕(鄭順朋)* · 윤원형(尹元衡)* · 이기(李芑)* · 임백령(林百齡)* · 허자(許磁)* 등의 다섯 간신은 죄가 하늘에까지 미쳤으니, 반드시 죽여서도 용서하지 못할 자들입니다.

문정왕후는 깊은 궁중 안에 조용히 계셨고, 명종은 어린 나이

에 상을 당하셨으니, 바깥의 시비를 어떻게 분명하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때에 다섯 간신들이 기회를 틈타 이익을 꾀하여 참혹한 살육으로 위세를 세우고, 몰수한 재물로 그들의 집을 부유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유언비어를 만들어 임금의 귀를 속였고, 엄한 형벌을 가하여 거짓 자백을 받아냈으며, 여러 불량배들을 모아서 세력을 확장하여, 한 시대의 충성스럽고 현명한 사람들을 모조리 몰아 반역이란 깊은 함정 속에 빠뜨렸습니다. 또 공론이 끝내 없어지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여 죄를 엮는 법을 만들어서, 만약 골목에서 이야기하거나 거리에서 말을 하여 조금이라도 시비를 가리는 자가 있으면, 곧 역적을 비호한다는 명목으로 뒤집어 씌워 삼족을 멸하는 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흉악한 음모가 이미 완성되자, 위사공신(衛社功臣)•의 칭호를 받고 기록되었습니다.

아! 인종께서 병환이 위독하실 때 남긴 교훈이 간곡하셨고, 또 중종의 적자(嫡子)로는 다만 한 사람이 남아 있을 뿐이었으니, 형이 작고한 뒤에 아우가 계승하는 것•은 천리와 인심에 적합한 일입

- 국시(國是) : 국가 구성원 누구나 동의하는 국가 이념이나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
- 을사사화 : 1545년(명종 원년) 윤원형(尹元衡) 일파 소윤(小尹)이 윤임(尹任) 일파 대윤(大尹)을 숙청하면서 사림이 크게 화를 입은 사건. 앞에 나옴.
- 정순붕(鄭順朋) : 조선 전기 문신으로 윤원형 · 이기 등과 함께 윤임 · 유관 등 대윤을 제거하는 데 적극 활약하여 을사사화의 중심인물이 되었음. 앞에 나옴.
- 윤원형(尹元衡) :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문정왕후의 동생이자, 명종의 삼촌으로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던 소윤의 영수로 을사사화를 통해 권력을 장악했지만, 문정황후가 죽자 관직을 삭탈 당함. 앞에 나옴.
- 이기(李芑) :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대윤 윤임(尹任)의 세력을 꺾으면서 을사사화를 일으켰음. 앞에 나옴.

니다. 저 다섯 간신이란 자들이 무슨 작은 공이라도 있습니까? 이때에 모든 관리들은 두려워 떨고 백성들은 슬퍼하고 분개하였으니, 종묘사직이 망하지 않은 것이 참으로 천행이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다섯 간신이 이미 죽고 공론이 다시 살아나 위로는 정승으로부터 아래로는 서민과 노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비분하고 개탄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다섯 간신의 살을 씹고자 하고 있는데, 다만 주상께서만 모르고 계실 뿐입니다.

손님 주상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을 어떻게 밝히시겠습니까?

주인 옛날에 곽공(郭公)*은 선한 사람을 좋아했지만 제대로 등용하지 못하고, 악한 사람을 싫어했지만 내쫓지 못하여 결국 나라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주상께서는 총명과 지혜가 모든 왕의 으뜸이시니, 만약 다섯 간신들의 죄를 아셨다면 반드시 발끈 한 번 진노하셔서 이미 죽은 자일지라도 다시 형벌을 더했을 터인데, 지금까지 잠잠하기 때문에 주상께서 알지 못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주상을 섬기는 여러 신하들의 정성이 지극하지 않다고 말할

- 임백령(林百齡) : 조선 중기 문신으로 호조판서 때 소윤에 가담, 대윤을 제거한 을사사화를 일으켰다.
- 허자(許磁) : 조선 중기 문신으로 대사헌이 된 후 윤원형 등과 함께 소윤으로서 대윤인 윤임을 제거하는 데 가담함.
- 위사공신(衛社功臣) : 을사사화 때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 형이 … 계승하는 것 : 명종은 인종의 동생으로 당시 중종의 생존한 적자였다.
- 곽공(郭公) : 이름은 적(赤)인데 춘추시대에 조(曹)나라 희공(僖公)이다. 오랑캐가 조나라를 침략하여 포로로 잡아갔던 곽적을 임금으로 세우니 꼭두각시였다. 『춘추(春秋)』 장공 25년 조에 보임.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을 바로잡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없는데, 주상께 고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공자께서 말하기를 "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악이 진흥되지 못하고, 예악이 진흥되지 못하면 형벌이 적중되지 않고, 형벌이 적중되지 않으면 백성들이 손발을 둘 데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충성스럽고 곧은 신하는 반역자로 배척되고, 간특한 무리의 우두머리들은 공신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 이보다 바르지 않은 명분이 더 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무엇보다도 다섯 간신의 죄를 드러내어 관직과 작위를 빼앗고 사직을 보호했다는 공훈을 모두 깎아버리는 일입니다. 또 죄 없는 사람은 모두 사면하여 이것을 종묘와 사직에 고하고 나라에 널리 알려서, 온 나라 사람들과 같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위로는 선대 임금들의 혼령을 위로하고 아래로는 조정과 재야의 분노하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새로운 정치가 차례로 거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손님 그대의 말은 참으로 시무에 절실한 것이지만, 다만 이전의 왕이 이미 정해놓은 일을 후대의 왕이 어찌 감히 고치겠습니까?

주인 (길게 몇 번 탄식을 하고) 세속의 견해가 하나같이 이러니 왕도정치를 끝내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효도라는 것은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고, 선대의 일을 잘 밝혀나가는 것입니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한 것은 명종의 뜻이고,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한 것

은 명종의 일입니다. 저 간사한 무리들이 임금의 밝음을 속여서 설령 한 때에 간사한 술책을 부릴 수 있었지만, 만세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명종께서는 하늘에서 밝히 보시면서 간사한 무리들의 죄상을 이미 다 환히 비추고, 또한 아득한 속에서 반드시 진노하시어, 우리 주상에게 손을 빌리려고 하실 것입니다. 주상께서 앞으로 그 뜻을 계승하고 그 사업을 밝히시어 하늘에 계신 명종의 마음에 맞추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잘못된 것을 그대로 이어나가 지하에 있는 간흉들의 귀신을 즐겁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 국시를 정하지 않으면 인심이 쉽게 동요되고, 명분을 바로 잡는 일이 미진하면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만약 간사한 무리들의 소굴을 소탕하여 국가의 원기(元氣)•를 붙잡아 보호하지 않는다면, 군자는 믿을 곳이 없어 그 충성을 다하지 못할 것이고, 소인은 엿보는 곳이 있어 그 악을 이으려고 할 것이니,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그대의 말처럼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탓하여 반드시 고치지 않는 것을 효도라고 한다면, 옛날에 문왕(文王)•은 상(商)나라를 섬긴 반면에 그의 아들 무왕(武

- 원기(元氣) : 만물이 생겨나거나 자라면서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서 근본으로 되는 기(氣). 앞에 나옴.
- 문왕(文王) : 중국 고대 주나라의 기초를 닦은 명군으로 이름은 창(昌). 고공단보(古公亶父)의 손자이자 무왕(武王)의 아버지고, 계력(季歷)의 아들이다. 앞에 나옴.

王)*은 주(紂)*를 죽였으니, 이것도 또한 아버지의 도를 배반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손님 (두 번 절하며) 그대의 말이 참 좋습니다. 그대의 말이 만약 시행된다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삼왕오제*의 왕도정치를 볼 것입니다.

주인은 물러가서 그 문답한 말을 기록하였다.

- 무왕(武王) : 문왕의 아들로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하였다..
- 주(紂) : 상나라 마지막 임금으로 폭군으로 알려져 있다. 앞에 나옴.
- 삼왕오제 : 삼왕은 하(夏)의 우왕(禹王)과 상(商)의 탕왕(湯王)과 주(周)의 문왕(文王)을 말하고, 오제는 상고 시대 전설상의 다섯 제왕으로 황제(黃帝) · 전욱(顓頊) · 제곡(帝嚳) · 요(堯) · 순(舜)을 말함. 앞에 나옴.

해설

이 편은 이 「동호문답」의 마지막이다. 도학으로서 왕도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방책으로서 정명(正名), 곧 명분을 바르게 할 것을 주장한다. 이 사상은 『논어』의 「자로」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에서 유래한다. 정명(正名)의 명(名)은 보통 이름, 명칭, 명분으로 번역되는데, 어떤 이름이나 명칭 또는 명분이 실제에 들어맞게 하는 것이 정명이다. 다시 말해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율곡이 이 정명사상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을사사화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당시 이 글을 쓰고 있는 선조 때까지도 위사공신(衛社功臣)으로 대우받고 있어, 나라의 원기(元氣)가 고갈되고 선비들의 사기가 떨어지며 백성들이 수족을 둘 데가 없다고 진단하였다. 왜 그런가? 바로 잘못된 무리들이 대우받고 잘 사는 세상이 되었으므로 나라에 정의 곧 도(道)가 없는 지경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율곡의 주장을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친일파 청산을 통한 역사바로세우기 운동과 통한다. 독립운동가 출신의 후손들은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반면에 친일파 후손들은 버젓이 보란들이 지배층으로 군림하면서 잘 산다면,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겠는가? 더구나 과거 독재정권과 군사쿠데타 정권의 후예, 그리고 정경유착의 산물로 온갖 특혜와 부를 누리고 있는 후손들이 여전히 부끄러움을 모르고 온갖 괴변과 억지주장으로, 선조들이 투쟁하여 세운 대한민국의 역

사부터 왜곡하려는 것을 보면, 율곡의 주장이 단지 역사의 한 장면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주장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 이처럼 애초 광복 후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한 것이 오늘날 혼란의 근본 원인이다. 나라를 위해 누가 애국할 것이며, 나라가 어려울 때 누가 목숨 바쳐가며 싸울 것인가?

그러므로 유학은 죽은 학문이 아니다. 나라에 원기(元氣)가 가득 차게 만들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며, 뜻있는 사람들의 사기(士氣)를 진작시키고, 땅에 떨어진 정의를 세우려면, 늦었지만 공자의 정명사상에 따라 역사를 제대로 평가해 기록하여 자손대대로 교육시켜야 한다. 그것이 공자의 춘추필법의 정신이 아닌가?

이 책의 앞부분에서 율곡이 도학으로 왕도정치를 실현하고자 했을 때 삼대 이후의 역사에서 그런 정치가 없었으므로,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것이라 여길 법도 하다. 삼대 이후 진정한 왕도정치가 없었으니 많은 독자들은 율곡의 그런 주장은 실현성이 전혀 없는 공리공담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거듭되면서 점차로 현실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개진하면서 비현실적이란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각종 개혁안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과거의 청산을 통해 이 주장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을 이루었다.

이념과 원리에서 출발하여 구체적 사안으로 진행되는 점층법을 사용한 율곡의 이런 글쓰기는 나름의 근거와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런 주장이 유교적 세계관, 특히 도학을 이었다

고 자부하는 성리학의 세계관에서 바라보는 국가개혁안이기 때문에 시대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성리학적 이상국가론이나 군주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오늘날은 만인이 평등하며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사민(四民)만이 아니라 남녀도 차별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관이나 개혁론이 만고불변의 진리일 수는 없다. 그러나 역사를 바라보는 맥락에서 그의 주장이나 이론을 해석하여 거울로 삼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본받고 참고해야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한문 원전 음미하기

孔子曰 名不正則言不順하고 言不順則事不成하고
공자왈 명부정즉언불순 언불순즉사불성

事不成則禮樂不興하고 禮樂不興則刑罰不中하고
사불성즉예악불흥 예악불흥즉형벌부중

刑罰不中則民無所措手足이라 하시니라. 今者에 忠
형벌부중즉민무소조수족 금자 충

讜之臣은 斥爲叛逆하고 姦慝之魁는 錄爲功臣하니
당지신 척위반역 간특지괴 녹위공신

名之不正이 莫甚於此하노이다.
명지부정 막심어차

曰: 말하다/名: 명칭, 명분/正: 바르다/順: 순하다/事: 일/成: 이루다/禮樂: 예법과 음악/興: 일어나다/中: 적중하다, 들어맞다/所: 곳, 장소/措: 두다/忠讜: 충성스럽게 곧은 말을 함/斥: 물리치다, 배척하다/姦慝: 간사하고 사특함/魁: 으뜸/錄: 기록하다/莫: 없다/甚: 심하다/於: ~보다의 비교를 나타내는 어조사/此: 이것/공자의 말은 『논어』에 나옴

해석

공자께서 말하기를 "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악이 진흥되지 못하고, 예악이 진흥되지 못하면 형벌이 적중되지 않고, 형벌이 적중되지 않으면 백성들이 손발을 둘 데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충성스럽고 곧은 신하는 반역자로 배척되고, 간특한 무리의 우두머리들은 공신으로 기록이 되

어 있으니, 바르지 않은 명분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습니다.

嗚呼라! 國是未定하면 則人心易搖하고 正名未盡하면 則善政難成이라. 若不埽蕩姦宄之囊槖하여 扶護國家之元氣하면 則君子無所恃而罔盡其忠하고 小人有所窺而欲紹其惡하리니 國之爲國을 未可知也라.
오호 국시미정 즉인심이요 정명미진 즉선정난성 약불소탕간귀지낭탁 부호국가지원기 즉군자무소시이망진기충 소인유소규이욕소기악 국지위국 미가지야

嗚呼: 슬픔을 나타내는 감탄사/國是: 국가의 기본원칙 또는 이념/未: 아니다. 아직 ~하지 못하다/定: 정하다/易搖: 쉽게 동요함/正名: 명칭 또는 명분을 바로잡음/未盡: 다하지 못함/善政: 좋은 정치/難: 어렵다/掃蕩: 쓸어버림/姦宄: 간사한 도둑/囊槖: 주머니와 전대/扶護: 붙들어 보호함/元氣: 만물의 근원, 생명력의 기운/若不~則~: 만약 ~하지 아니하면 ~하다/所: ~것/恃: 믿다/罔: 없다/忠: 충성/有: 가지다/窺: 엿보다/欲: ~하려고 하다/紹: 잇다

해석

아! 국시를 정하지 않으면 인심이 쉽게 동요하고, 명분을 바로 잡는 일이 미진하면 좋은 정치를 이루기 어렵다. 만약 간사한 무리

들의 소굴을 소탕하여 국가의 원기(元氣)를 붙잡아 보호하지 않는다면, 군자는 믿을 곳이 없어 그 충성을 다하지 못할 것이고, 소인은 엿보는 곳이 있어 그 악을 이으려고 할 것이니,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